

영화, 시장 및 대중 감시: 변화의 10 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

목차

2 도입

3 섹션 1: 북한 내부의 변화

9 섹션 2: 국제 공동체 변화

11 섹션 3: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도입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는 2007 년에 북한(공식 명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급대응(A Case to Answer, a Call to Act)”이라는 명칭의 인권 보고서는 인권 유린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조사위원회(COI)를 구성할 것을 UN 에 요청했습니다.¹

UN 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 규모, 본질’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결론 내린 종합 보고서를 2014 년에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후 UN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유엔안보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강력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엔총회(General Assembly) 인권위원회도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4 년 11 월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승인했고 유엔안보리는 같은 해 12 월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으로 안보리 의제에 추가했습니다.

2007 년 세계기독교연대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요청한 후 10 년이 지난 지금, 본 보고서는 지난 10 년간 북한 내외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봅니다.

- 경제적 생존 방식의 변화
- 북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 방식 변화
- 탈북 양상의 변화
- 표현의 자유와 정권 비판
- 법률과 관행 면에서의 인권 변화

본 보고서는 비록 북한 정권은 변하지 않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변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새롭고 효과적인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은 지난 10 년간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탈북자들과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¹ 1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2007), *North Korea: A Case to Answer, A Call to Act* www.csw.org.uk/2007/06/20/report/35/article.htm

본 보고서는 탈북자, 서울 소재 UN 사무소, 탈북자 단체, 한국 공무원 및 전문가, 학계, 언론계, 한국 국제인권단체 및 종교단체를 비롯한 100 명 이상의 응답자들이 세계기독교연대에 직접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여 쓰여졌습니다. 본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과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의 활동가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뛰어난 연구로 본 보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HILS) 교수진 및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문서는 동명의 긴 보고서를 간략하게 요약한 버전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www.csw.org.uk/2018-northkorea-repor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대만민주주의재단(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토르스 자선투자신탁(Torrs Charitable Trust)와 포레스트힐 자선투자신탁(Forest Hill Charitable Trust)의 자금 지원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섹션 1 : 북한 내부의 변화

본 섹션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북한 인권 현황을 직·간접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i. 경제적 생존 방식의 변화

북한 주민들의 삶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주민들이 중앙 정부의 식량 배급제 의존에서 벗어나 북한정부가 암암리에 묵인하고 있는 암시장에서의 사무역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²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밀수를 비롯한 시장에서의 불법 거래가 많은 이들에게 생명줄이 되었고 일부에게는 상대적 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 변화는 빈부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 대기근 동안에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식량 배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살아남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 함경도 출신, 인터뷰 대상자 C 씨 (41 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에서 ‘적자생존’ 및 ‘자립’으로의 변화가 국가와 시민들 간의 심리적, 현실적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험 감수와 규칙 위반이 보상을 받아오면서 이는 북한 내부에서 정권의 소프트파워의 기반을 유의미하게 약화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미치지 않습니다. 북한 공무원들도 종종 사무역에 관여하고 뇌물과 리베이트를 통해 장사꾼들로부터 이득을 취합니다.³

² 이 주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James Pearson and Daniel Tudor (2015), *North Korea Confidential*, and Sokeel Park of LINK, *Social Change in North Korea: Current trends and future perspectives* - 두 자료 모두 경제적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³ Pearson and Tudor, 2015:37

지난 10 년간 뇌물 수수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담배 한 갑 살 정도의 뇌물을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담배 열 갑이나 한 보루 살 돈을 뇌물로 줘야 합니다!”

북한 함경도 출신, 50 세, 인터뷰 대상자 A 씨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부패로 인해 정권이 약화되고 있다고 가정해 왔습니다. 특히 책임자에게 그에 걸맞은 뇌물을 주면 중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권 유린으로 간주되거나 인권 유린을 수반하는 일부 사례에서 뇌물을 사용해 징역형과 다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 영화와 드라마를 북한으로 밀수할 때도 뇌물은 필수입니다. 북한 주민들과 탈북한 가족들의 전화통화를 성사시켜 주는 브로커들도 등록되지 않은 중국제 휴대폰 사용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정부패는 북한 내부에서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뇌물은 인권의 행사와 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부와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극단적인 사회를 만듭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사실이나, 북한은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인권에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인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인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물었을 때, 인터뷰 대상자 H 씨

북한정부가 사무역을 용인하고 제한된 범위안에서 일부 정책을 변경해 온 것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가 있으나, 이는 이미 주민사회에 **이미** 일어난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하향식(bottom-up)으로 일반 북한 주민들의 필요와 의지에 의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일부 사람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빈곤, 영양실조 및 관련 질병이 여전히 주요한 사회 문제로 존재함을 유념해야 합니다.⁴

ii. 북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 방식 변화

북한 정권은 여전히 북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지만, 사회 모든 계층에서 외부 정보에 노출되는 사람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일부는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외부 정보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중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한 보도보다는 재미에 초점을 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어느 정도는 북한 정부의 체제 선전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촉발해왔습니다.

북한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심층 인터뷰에서 가장 어린 인터뷰 응답자들에 따르면 친한 친구들과 함께 외국 방송을 시청하고 USB 를 통해 미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⁴ 인도주의 외교업무 지원팀과 파트너들이 작성한 2017 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2490 만 명 인구 중 1800 만 명이 식량 공급 불안정과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p.6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DPRK%20Needs%20and%20Priorities%202017.pdf>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시작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인 겨울연가(2002)가 북한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최근에는 태양의 후예(2016)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도전 같은 역사 프로그램들은 북한의 식자층과 고연령층에 인기가 있습니다.

2015 년에 로이터 통신사(Reuters)는 '노텔(notel)'이라는 USD50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⁵ 노텔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 쉽게 휴대하고 숨길 수 있고, 저전압용이라 자동차 배터리로 충전할 수 있으며, USB 슬롯과 DVD 플레이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 당국에서 검문을 위해 해당 지역의 전력공급을 차단할 때 장치에 들어 있는 DVD 를 단속할 수는 있으나 그 안의 USB 를 꺼내는 것은 막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검문이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해외 미디어가 담긴 USB 를 재빨리 빼고, 당국에서 제작한 DVD 를 시청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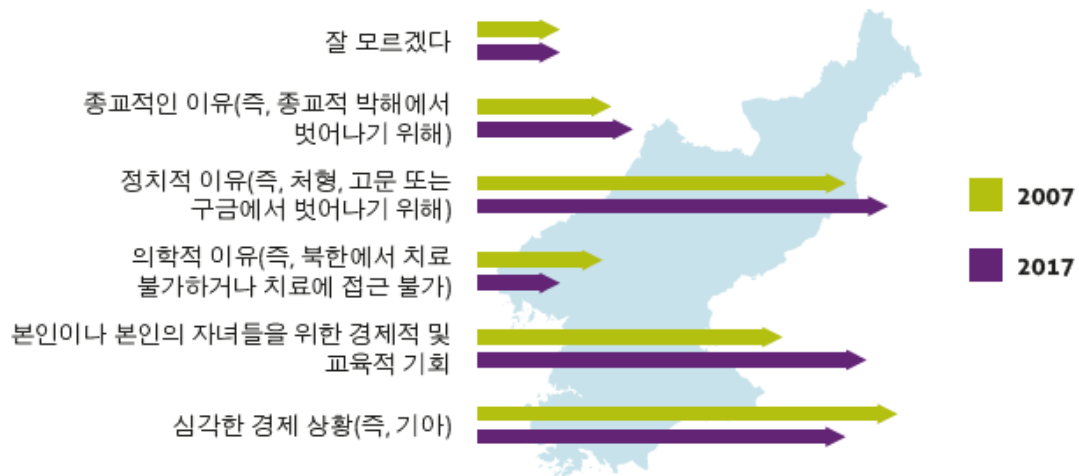
해외 미디어 배포 및 시청에 대한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디어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북한 가족과의 전화 통화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중요한 출처입니다. 인터뷰 응답자들에 따르면,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들은 외국에 대한 북한 정부의 선전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iii. 탈북 양상의 변화

북한을 떠나는 행위를 '변절'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탈북자들은 '변절자'라고 불립니다. 본 보고서는 나라를 떠나는 행위에 정치적 동기부여를 전제한 '변절자'보다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이는 탈북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례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⁵ Reuters, 'The \$50 device that symbolizes a shift in North Korea', 27 March 2015
<http://uk.reuters.com/article/us-northkorea-change-insight-idUKKBN0MM2UZ20150327>

현재와 비교했을 때, 탈북자들 대부분이 2007 년에 북한을 떠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생존할 수만 있다면 북한에서 지내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자유, 기회, 희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강도 출신, 53 세, 인터뷰 대상자 G 씨

최근 몇 년간 탈북자 유형과 탈북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탈북자 대부분이 홀로 그리고 굶주림에 탈북했지만, 지금은 가족 단위의 부유층도 탈북 행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이유 중 하나는 국경 보안이 강화되면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천정부지로 솟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자 수가 줄었을지라도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 수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v. 표현의 자유와 정권 비판

탈북자들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만연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정권에 대해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드물기는 하지만 직, 간접적인 정권 비판이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출발점으로 보기에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인터뷰 당시 27 세 H 씨는 친구들과 함께 외국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이 어떻게 간접적인 체제 비판을 초래했는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친구들과 드라마를 봤을 때 처음엔 남한 사람들이 부러웠고 조금 지나고는 우리도 해외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났는지 불평하곤 했습니다.”

정권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과 전체적인 불만족 수준이 증가한 것을 체제 반목에 대한 정권의 통제가 느슨해진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뷰 대상자 B 씨(북한 함경도 출신, 26 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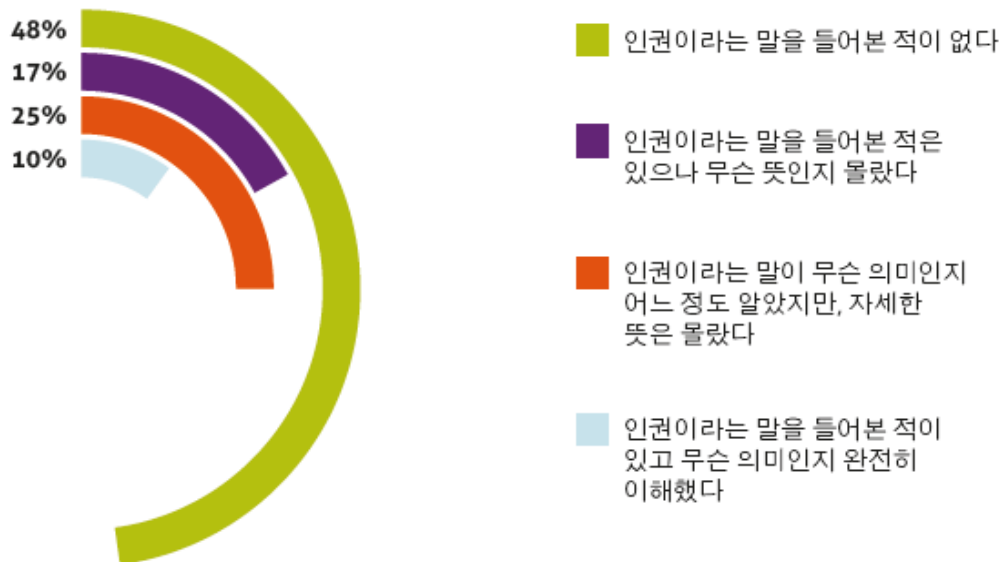
“총체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모두가 항상 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v. 법과 관행 면에서의 인권 변화

2009 년에 처음으로 ‘인권’이란 단어가 헌법에 수록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권리와 관련된 새로운 법 제정 10 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 법안의 상당 부분은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하며,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해외에 정착한 북한 주민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선우와 김지홍⁶의 논문에 따르면 이 법안은 ‘UN 기구와 같은 국제포럼이 제기한 비난과 개선 요구를 북한이 인식한 결과’입니다.

북한에서 살았을 때 인권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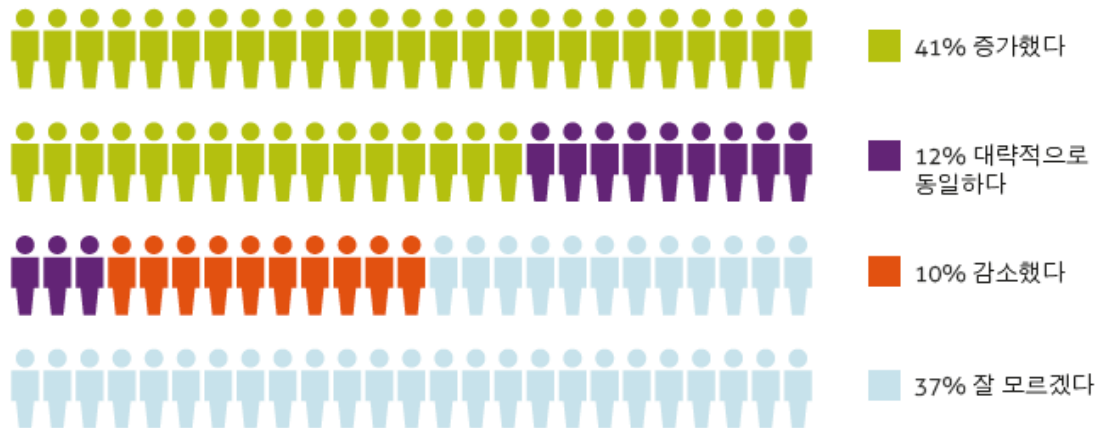
북한 함경도 출신, 50 세, 인터뷰 응답자 A 씨는 2007~8 년경에 법조계에 종사하는 삼촌으로부터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국제 공동체가 북한의 인권 수준이 전 세계 최악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인터뷰 응답자들은 한국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항의하고 있다는 기사를 국영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지침’ 또는 실태조사의 결과로 수감자들을 때리지 말라는 명령이 감옥에 전달된 시기에 갇힌 것이 행운임을 알라는 말을 동료 수감자에게 들었다는 일부 수감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일회성으로 세계기독연대가 조사 과정중에 여러 사례를 접했음에도

⁶ Sunwoo Lee and Jihong Kim, ‘Examining NK law and examining NK government directives for changes in regard to children’s human rights’, Handong University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출신이 직접 증언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아는 선에서 2007 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수용소에 갇힌 사람의 수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북한 함경도 출신, 50 세, 인터뷰 응답자 A 씨는 월경자들을 비롯하여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엘리트층과 일반인의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07 년 이후에 처형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응답자도 있으나 또 다른 응답자는 사람들이 공개 처형 대신 은밀하게 '제거되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정보는 경고성을 띵니다.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개 처형건이 줄어들었을라도 이는 전체 집행건수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형이 비밀리에 집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반적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한 응답자들은 그러한 개선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덕분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예, [인권] 어느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UN 이 시끄럽게 소란을 떠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그 누구도 인권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북한 함경도 출신, 42 세, 인터뷰 대상자 E 씨

비록 제한적이고 검증이 불가능 할지라도, 지난 10 년간 작게나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 왔음을 드러내는 일회성 증거나 인식이 존재함을 성급하게 일축해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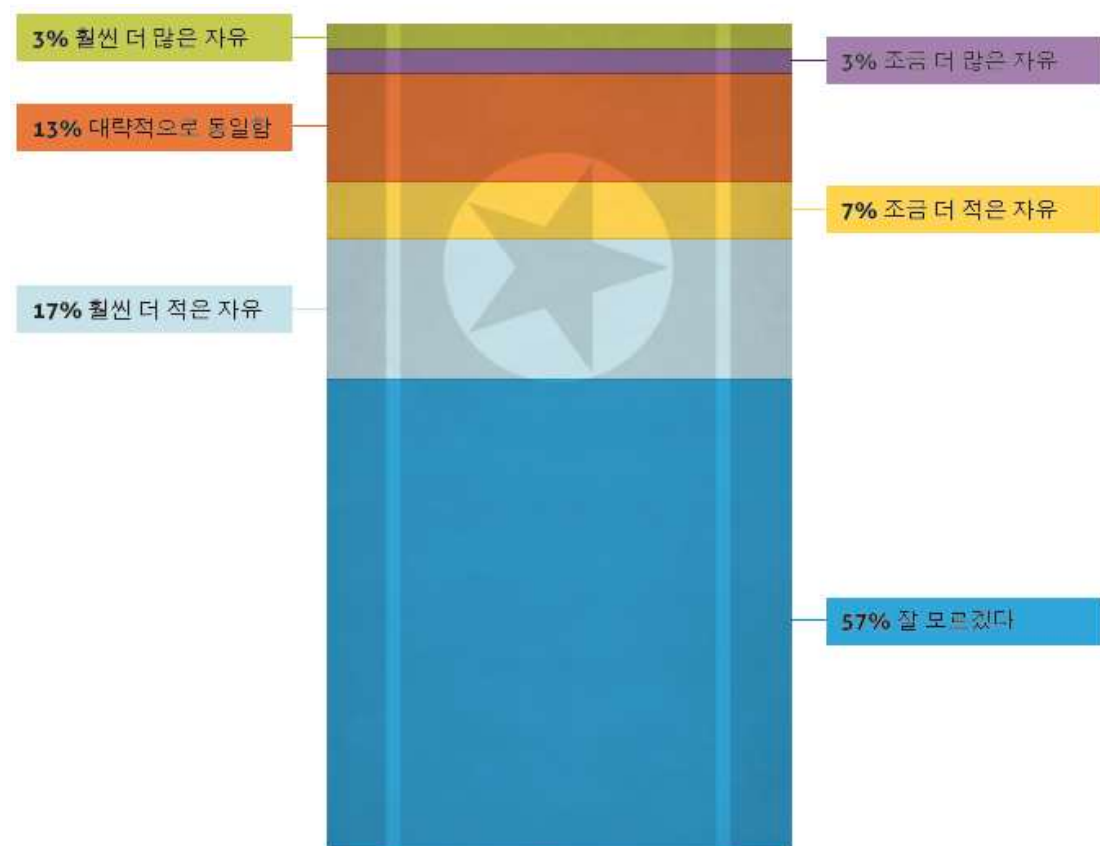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런 일회성 증거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7 년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고려할 때 인권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고 부정확한 결론이 될 것입니다.

특별 주제

종교

인터뷰 응답자들의 답변은 지난 10년간 경제, 정보, 비판 및 인권 인식 분야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이 중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주목할 만한 예외적 사례로 종교가 있습니다. 인터뷰 응답자들은 일관되게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보고했으며, 응답자들의 단 6%만이 2007년에 비해 2017년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 것으로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이 질문은 또한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율이 가장 높았던 질문이었습니다(57%).

2007년 이후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 응답자가 북한에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할 때 다른 응답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종교에 관한 처벌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저 두려워합니다.”

절을 방문한 적이 있는 두 명의 심층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 단 한 번도 북한에서 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에서 부처상을 본적은 있지만, 기독교인을 만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누군가 기독교인으로 밝혀지면 즉시 총살될 것입니다.”

북한 함경도 출신, 25 세, 인터뷰 대상자 D 씨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에는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대한 관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사를 지내고 점을 보는 것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종교적 관행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섹션 2:

국제 공동체의 변화

해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북한 내 부조리와 제약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0 년대에 비해 아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빈곤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나마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인권 유린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동안 북한 외부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문제를 귀 기울여 듣고 행동을 취하려고 하나요?

한계와 도전과제

거의 전적으로 안보 위협에만 중점을 두고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는 2 차적 사안으로 미루는 경향을 비롯하여 상황의 여러 측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권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은 여전히 접근 불가능한 북한에 대한 정보를 검증하느라 고군분투 중이며, 국제 비정부기구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할 만한 북한 내부의 지역사회, 시민이 주관하는 단체가 형성될 수 없다는 점은 이러한 비정부기구들이 북한 인권 유린에 맞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UN 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단체들도 북한 정권의 감시 없이 북한 내 지역에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UN 조사위원회 및 기타 변화

인권 보고 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04 년 2 월에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UN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세계기독교연대의 2007 년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기독교연대는 동 목표를 지지하는 전 세계 40 여 개 인권 단체가 속한 네트워크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를 2011 년 창설하고 공동으로 기금을 투자했습니다.

400 페이지에 달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몰살,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 및 성별에 따른 박해, 강제 이주, 납치, 그리고 기타 상태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비인도적행위를 비롯한 반인도 범죄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문제에 관한 영국의원협의회(APPG) 및 세계기독교연대와 기타 단체들이 수년간 캠페인을 수행한 결과 BBC는 한반도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2016년에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한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추가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전에는 북한 정권 전복 후 북한의 미래를 논의하는 일이 한국만의 문제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련하여 전 세계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충족되었습니까?

세계기독교연대의 2007년 보고서 권고사항은 일부 충족되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항: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구성한다.

이 권고사항이 충족되었습니까? 충족되었습니다.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후 유엔안보리는 2014년 4월에 북한 인권 문제를 소재로 하는 특별 세션을 열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유엔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을 안보리 의제에 정식으로 추가했습니다.

권고사항: UN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유지한다.

이 권고사항이 충족되었습니까?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북한 측의 협력 부족으로 약화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UN 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접근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권고사항: UN 회원국과 지부는 UN 조치를 지원하고 난민을 수용하고 국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인권문제에 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이 권고사항이 충족되었습니까? 일부 충족되었습니다. 여러 회원국들이 조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이후의 결의안과 다른 조치들도 지지했습니다. 주로 중국을 비롯한 몇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UN 의제로 상정하려는 시도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의 협력을 거부했고, 계속해서 탈북자를 경제 이민자로 취급하며 관례에 따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합니다. 일부 UN 회원국들이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허용하는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탈북자 정착이 허용된 한국으로의 송환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권고사항: 시민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최우선시하고, 북한의 국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폭력이 종식되도록 다른 국가들을 종용하고 생존자들을 위한 원조,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권고사항이 충족되었습니까? 일부 충족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 문제를 다루는 주요 인권 단체의 수와 북한을 다루는 특정 단체, 프로젝트와 계획 발표 횟수 모두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몇 사례에 따르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기금이 조성된 덕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단체가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한국이나 해외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섹션 3: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 유엔조사위원회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 그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한국 인권 활동가

현실에 대한 이해 확대

북핵 개발을 중단하고 정권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재를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 제재는 독립적인 수입 창출원이 되는 무역 거래를 방해하고 잠재적으로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연결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정부들은 북한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경제 제재가 인권 및 인도주의적 우려 사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제 제재도 신중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탈북자 지원 방법 모색

탈북자 지원 방안으로 장학금, 교류 기회 및 리더십 교육 제공 등이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 단체는 탈북자를 회의나 행사에서 증언할 '자원'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 내 주민들 지원 및 정보 제공 방법 모색

북한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둔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북한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러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 미디어를 접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미디어의 상당 부분을 젊은 층을 타겟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탈북자들이 이러한 미디어와 정보를 구성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관한 모든 조치 및 논의에서 인권 최우선화

UN 회원국, UN 기관, 시민사회 및 다른 관련 활동가들은 안보에 대한 우려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잠식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보안, 인권 및 인도주의적 필요간의 관련성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정부의 참여 기회 유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이후 북한은 부분적일지라도 UN 인권 체제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계기독교연대가 인터뷰를 한 전문가 다수는 그 이유를 정권 관계자들과

지도자들이 훗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최근의 변화는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북한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본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북한의 핵 실험과 위협이 계속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북한 국영방송은 행진하는 병사들과 애국적인 주민들의 행렬을 보여주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주민들은 정권에 세뇌당한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열과 성의를 다해 연출한 이러한 장면들 뒤에서 북한은 변화하고 있고, 변화를 만드는 것은 이러한 주민들입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 중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이 그들만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으며, 패션과 데이트에서부터 기업과 무역에 이르는 모든 분야의 경계를 점차적으로 허물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한 이니셔티브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탈북자인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제 공동체의 지원과 함께 말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생존할 수만 있다면 북한에서 지내는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자유, 기회, 희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강도 출신, 53 세, 인터뷰 응답자 G 씨

세계기독교연대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단체로 인권 보호 활동을 통해 정의구현을 추구합니다.